

집유일원화를 시행하며

- 낙농진흥회 기획부 -

I. 머리말

'60년대초 우리 국민들은 우유 한 모금도 제대로 맛보지 못할만큼 미약한 규모였던 낙농업은 정부의 강력한 낙농진흥정책에 힘입어 30여년만에 괄목할만한 양적 성장을 보여 이제는 우리의 중요한 식량자원으로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우유는 완전식품(Nearly perfect food)으로 액상이라서 매일 매일 가공처리하지 않으면 저장보관의 어려움이 가장 큰 과제인 농산물이다. 따라서 원유는 다른 농산물보다도 특별히 수급안정이 요구된다.

선진 낙농국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일찍이 간파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정부가 직접 거래가격을 정하고 생산 수급조절을 하며 생산능가를 보호하고 있는 농산물이 우유밖에 없는 것도 이러한 우유 고유의 특성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원유 과잉생산이 처음 발생한 '73년 이후 격년 주기의 원유 과부족 현상이 반복되어 왔다. 그 이후 낙농가들은 한해도 빠짐없이 원유가 부족할 때와 원유가 남을 때는 많은 시련을 겪어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원유수급의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수급안정에 대한 필요성의 요구가 강조되어 낙농관계자들이 제도화하려고 오랜기간 노력한 결과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그 결실을 맺어 집유일원화를 시행하게 되었다.

II. 집유일원화의 기대효과

집유일원화가 시행되면 무엇보다도 낙농생산기반에 대한 기초자료 즉 젖소현황, 원유생산량 및 원유품

질 등 일관성있는 낙농지도사업자료 도출이 가능해지므로 이를 토대로 과학적인 개별 낙농가 지도를 할 수 있어 원유의 품질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며, 낙농생산통계자료와 원유수요량을 분석하여 수급예측 모델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정된 원유의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원유 유통비용이 절감될 것이다.

원유 유통비용의 절감은 곧바로 낙농가와 유업체가 그 수혜자가 되며 낙농경영과 기업경영이 합리화될 것이다. 그리고 집유일원화와 원유검사공영화로 집유주체와 검사주체가 다원화되어 있을때 보다 낙농가와 집유주체 그리고 유업체간의 분쟁발생이 감소하고 불신이 해소된다.

또한 원활한 원유수급 조절을 하고 무엇보다도 먼저 낙농가의 권리를 강화해나가기 위해서 집유일원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집유일원화의 시행으로 원유와 유제품의 품질이 전체적으로 지금보다 더 향상되어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임으로 소비기반 확충과 동시에 낙농생산 기반이 안정적으로 조성되고 낙농산업 전분야에서 획기적인 구조 조정이 이루어져 국제경쟁력을 가진 낙농산업의 기틀을 마련 할 수 있을 것이다.

III. 원유 계약생산의 의미

원유 계약생산제는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을 안정시켜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낙농산업 경영을 합리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유 계약생산제는 낙농가의 원유생산량을 제한하여 목장경영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고 낙농인 스스

로가 목장을 책임 경영하도록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를 의미하는 것이며 계약생산한 원유는 전량 납유를 받는다.

원유가 남거나 모자라지 않는 수급안정은 원유생산 계획이 선행되고 생산계획의 정확성이 말바탕이 되어야만 가능하다. 원유의 계획생산량이 원유수요를 초과하여 과잉 생산되더라도 수급안정대책 마련으로 유제품의 수매와 비축 및 방출을 통하여 남는 원유 이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시행 첫해에는 낙농가의 희망량으로 계약생산하도록 하지만 터무니 없는 생산계획으로 계획량보다 현저히 미달 또는 과잉 생산시 파급 효과는 대단히 크다.

즉, 유가공장에서는 원유생산계획에 따라 생산계획을 수립하여 유제품 판매계획을 세웠는데 원유가 모자라 유제품 생산이 중단될 수 있고, 또 계약생산량보다 갑자기 원유생산이 많았을때 혼란이 올수 있으므로 가능한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산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집유일원화 일정을 참고하여 가능한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생산계획서 작성이 중요하며 집유일원화 일정을 참고하여 목장경영 계획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계약생산량을 결정하여 원유생산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Ⅳ. 맺는말

집유일원화와 계약생산제에 대해 낙농가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계약생산과 납유에 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였으나 미흡한 점은 다시 보완하여 낙농가 여러분에게 집유조합을 통하여 상세히 설명될 것이며 곧 집유조합을 통하여 원유 생산계획서를 작성하게 된다.

낙농가 여러분의 정확한 생산계약서 작성이 집유일원화를 통한 원유수급안정의 지름길이다. 이점 거듭 강조하오니 꼭 유념하여 정확한 원유생산 계획으로 집유일원화의 목적이 조기에 정착되어 원유수급안정에 기여해 주기를 바란다.

낙농산업 40년동안 낙농인을 위한 제도와 전문기구 하나없이 원유수급 불안정으로 많은 우여곡절을 경험한 낙농산업 관계자들이 낙농진흥법을 개정하여 집유일원화와 검사공영제 그리고 원유수급 안정을 위

한 계약생산제가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모든 낙농가·집유조합·유가공업체 및 관련단체와 기관에서도 적극적인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집유일원화 일정

□ 낙농진흥회 창립

◆ 낙농진흥회(회장 지설하)는 1998년12월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이사 및 집행간부를 선임하고 금년 1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하였다.

- 이사 선임 15명(회장, 농림부 당면직 1명, 축협 4명, 낙농육우협회 3명, 유가공협회 4명, 학계 1명, 소비자 1명)

- 회장 지설하(농림부 축산국장·충남대 교수 역임), 전무 정선부(전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 소장)

□ 집유조합 지정으로 집유일원화 추진 본격화

◆ 99. 3.17. 낙농진흥회(회장: 지설하) 제 2차 이사회에서 집유조합지정 기준을 심의 의결하고 집유조합을 지정하였다.

◆ 집유조합 지정·운영은 집유비용 등을 고려할 때 도별 1개 이내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시행 초기에 보다 많은 낙농가와 조합 및 유업체가 함께 동참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초기에는 한시적으로 복수조합을 지정 운영한다.

◆ 도별로 지정된 집유조합은 아래와 같다.

- 서울·인천·경기도 : 서울유유, 팽택축협

- 강원도 : 강원낙협, 춘천축협

- 충청북도 : 음성축협, 청주유유

- 전라북도 : 동진강낙협, 지리산낙협

- 광주·전라남도 : 광주전남유유, 전남동부낙협

- 대구·경상북도 : 경북중앙낙협, 대구경북유유

- 부산·경상남도 : 경남낙협, 부산경남유유

- 제주도 : 제주낙협

※ 충청남도도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추후 지정 예정

□ 집유일원화 추진 회의 개최

◆ 도별 집유조합 지정에 따른 집유일원화 추진을 위한 집유조합장 및 실무자 회의를 3월 19일 낙농진

흥회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지설하 회장의 낙농진흥회 경영 방침과 1999년도 사업계획과 목표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집유 일원화 시행에 따른 각종 업무 방안 설명과 집유조합이 제출 할 집유 사업계획 작성 요령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 집유일원화 추진 일정

- ◆ 집유일원화 사업추진일정은 집유조합이 집유사업 계획서를 3월말까지 진흥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낙농진흥회와 집유조합은 도별 2개 집유조합 지정에 따른 집유구역을 3월23~27일까지 협의조정하며 4월 6일부터 4월 14일까지 각 도별, 집유조합별로 집유사업계획서를 낙농진흥회와 세부적으로 협의 확정하고 4월 21일부터 각 도별로 재편된 집유노선에 따라 도상 집유연습을 거쳐 4월말부터는 집유일원화업무를 개시한다.
- ◆ 집유조합 지정과 집유일원화 업무실시와 연계하여

수행되는 검사 공영화(시·도 검사기관)를 차질없이 실행하기 위한 실무회의가 3월 22일 농림부·수의과학검역원 등 실무자들로 구성된 준비회의에서 원유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검사원 교육과 검사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집유일원화 개시와 함께 검사공영화도 시행한다.

□ 원유 생산계획과 원유 수요량 조사

- ◆ 집유일원화에서 3월말까지 농가별 98년도 원유 생산량조사와 99년 생산계획량을 조사하고 4월 20일까지 원유계약 희망량 검토 및 생산계획이 체결되는 데 시행 첫해에는 농가 생산 희망량으로 계약되므로 정확한 원유생산 계획이 기초되어야만 원유수급안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므로 낙농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 ◆ 낙농진흥회와 원유수요자의 원유 공급계약 체결을 4월 20일까지 완료하도록 업무협의를 하여 집유일원화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고 있다.

회비를 납부하여 우리의 책임을 다 합시다.

협회는 정부의 원유가격 5.4% 인하 방침에 맞서 저능력우 도태와 자조금 사업실시 등을 내세워 원유대 인하 방침을 유보함과 동시에 국산우유 소비홍보를 통한 낙농산업 생산기반 확보 대책 마련에 적극 앞장서고 있습니다.

협회가 보다 강력한 활동으로 회원의 대변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모든 낙농육우농가가 협회로 단합하는 길이며 이는 회원가입으로 가능합니다.

올해도 호당 협회비 3만원을 조기에 납부하시어 협회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며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社團 韓 國 酪 農 肉 牛 場 會
法人